"관객과 만남 기대 … 훌륭한 배우들 연기 봐달라"

황금종려상 들고 금의환향 '기생충' 봉준호·송강호

"한국영화 100주년 선물 … '봉준호가 곧 장르' 평가 기뻐"

30일 국내 개봉 … 국내 관객들 기대감 커져 예매 순위 1위

영화 '기생충'으로 지난 25일(현지시간) 폐막한 올해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과 주연 배우 송강호가 27일 금의환향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 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한국영화 100년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쓴 두 사람인 만큼, 이날 입국장에는 취재진과 팬 등 200여명이 몰려 귀국길을 맞았다. 봉 감독과 송강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던 일부 팬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봉 감독은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주먹을 쥐거나 손을 흔들며 포즈를 취했고 송강호는 밝은 미소로 취재진 앞에 섰다.

봉 감독은 수상 소감을 묻자 "한국영화 10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겹경사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쁜 일이며 한국 관객들과 만남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강호는 "봉 감독이 지난 20년간 노력했던 결과물이 정점을 찍은 것 같아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럽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제가 대표로 칸에 남아 있었지만, 저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나온 작품"이라며 "그 배우들의 연기 또한 사랑해주실 거라 생각한다"며 한국 관객들의 성원을 부탁했다.

봉 감독은 한국에 오면 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묻자 "집에 가고 싶다"며 "제가 키우는 강아지 '쭌이'가 보고 싶고, 충무김밥이 먹고 싶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송강호 역시 "집에 가고 싶다"며 "8일간 나왔다 왔는데, 거리도 멀고 많이 지친다"고 했다.

두 사람은 칸 황금종려상 상패를 꺼내 들고 환하게 다시 웃었다.

이들은 입국장으로 나오기 전에 일부 취재진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송강호는 이 인터뷰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관객 여러분들의 열광이 오늘의 한국영화를 만든 것"이라며 거듭 감사를 전했다.

봉 감독은 "폐막식 파티 때 심사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영화 100주년이라고 말했더니 기뻐했다"며 "칸에서 한국영화 100주년에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봉 감독은 칸에서 "봉준호가 곧 장르"라는 평가를 받은 데 대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다. 수상한 것만큼 기뻤다"고 털어놨다.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왼쪽〉이 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배우 송강호와 함께 취재진에게 황금종려상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봉 감독은 칸영화제 수상 직후 포토콜에서 무릎을 꿇고 송강호에게 트로피를 건네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송강호는 "감독님께서 퍼포먼스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다"고 웃었고, 봉 감독은 "다른 감독과 배우들도 많이 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가벼운 퍼포먼스였다"고 답했다.

봉 감독은 "모든 감독과 제작자는 개봉 직전이 가장 떨리고, 부담되고 설레고 기대가 된다. 복잡한 심경"이라며 오는 30일 국내 개봉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그는 '기생충'이 스태프의 표준근로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완성된 작품으로 화제가 된 데 대해 "'기생충'만이 유별난 건 아니고 2~3년 전부터 영화 스태프의 급여 등은 정상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영화는 2~3년 전부터 (그런 점들을) 정리를 해왔다. 영화인들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강호는 "'기생충'은 상 자체보다도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영화 진화의 결정체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 관객들도 그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봉 감독은 "(송)강호 선배님뿐만 아니라 멋진 배우들이 있다. 배우들이 뽑아내는 희로애락이 있다. 배우들의 화려한 연기를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두 사람은 '기생충' 국내 개봉을 앞두고 언론 매체와 인터뷰, 관객과 대화 등을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국영화 사상 첫 황금종려상을 안긴 '기생충'은 봉 감독의 일곱 번째 장편영화로, 전원 백수인 기택네 장남 기우가 박 사장네 고액 과외 선생이 되면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다룬 블랙코미디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빈부격차, 갑을관계 등 사회적 이슈를 유머러스하면서 통찰력 있게 담아냈다. 등급은 15세 관람가다.

칸영화제 수상 이후 국내 관객들의 기대감도 커지면서 이 영화는 27일 오후 5시 현재 실시간 예매율 44.7%, 예매 관객 수 13만 870여명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순제작비는 135억원(총제작비 160억원 안팎)으로 손익분기점은 370만명이다. 그러나 이미 전 세계 192개국에 사전 판매돼 어느 정도 제작비를 회수한 상태여서 손익분기점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생충'은 한국영화 100년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고권위의 칸국제영화제 올해 72회 대회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인 만큼, 흥행에서도 '칸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6일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영화에 대해 기대감이 커지면서 예매율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연합뉴스

잔나비, 학교폭력 논란

방송출연 취소 잇따라

멤버 학교폭력 논란 등이 불거진 밴드 잔나비가 방송 출연 계획도 잇따라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다.

SBS파워FM(107.7㎒)은 잔나비가 게스트로 출연 중인 SBS파워FM(107.7㎒) '정소민의 영스트리트' 이번 주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다음 주까지 출연이 취소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잔나비는 28일 출연 예정이었던 KBS쿨FM(89.1㎒) '이수지의 가요광장'에도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날 방송 예정인 SBS TV '본격 연예 한밤'에서도 편집된다. 논란 이전 인터뷰를 했지만 해당 분량을 방송할 수 없게 됐다. 대신 제작진은 이번 논란과 관련한 내용을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잔나비는 숙명여자대학교 축제 '청파제' 라인업에서도 제외됐다.

잔나비 멤버 유영현은 학교폭력 가해자란 논란에 휩싸였다. 유영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밴드에서 자진 탈퇴했다.

이어 보컬 최정훈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향응 제공 혐의를 받는 사업가의 아들로 회사 경영에도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활동에 위기를 맞았다. /연합뉴스

기부천사 이준기

의료소외계층 6천만원·쌀 5톤 전달

배우 이준기(사진)가 의료소외계층 환자들을 위해 자선기금 6000만원과 쌀 5t을 고려대학교의료원 기금사업본부에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준기가 팬들이 꾸준히 보낸 쌀 화환을 보면서 팬들과 함께 뜻깊은 일을 하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대의료원 측은 "보내주신 자선기금과 사랑의 쌀은 '나눔'의 가치를 기억하며 국내외 환자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준기는 아시아 팬미팅을 마친 후 차기작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국민 여러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회사 가기 싫어 2019(재)	00 12 MBC 뉴스 25 다큐 나는…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재)
1	00 그날이 오면 〈인쇄기를 돌려라〉(재) 55 우리말 겨루기(재)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5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버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경성판타지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왼손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국민 여러분(재)	55 5·18 특집 임을 위한 하모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오늘밤 김제동	00 국민 여러분	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00 초면에 사랑합니다
11	35 UHD 숨터 40 거리의 만찬(재)	10 회사 가기 싫어 2019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걸작 다큐멘터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로보카 폴리
07:15 꼬마버스 타요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페파 피그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몬카트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마샤와 곰
09:30 원더볼즈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3:00 다큐 오늘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3:40 사건 브리핑-안전상황실
14:30 꼬마버스 타요(재)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5:45 출동! 슈퍼윙스(재)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15 세미와 매직큐브
16:30 딩동댕 유치원1~2
17:00 EBS 뉴스
17:20 명탐정 피트
17:30 로보카 폴리
17:45 마샤와 곰(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1~5
19:00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20:40 세계테마기행
〈낭만 동유럽 2부 낯선 초대 헝가리〉
21:30 한국기행
〈섬마을 밥집 2부 그 섬에서 뭐 먹지?〉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건축탐구 - 집
23:55 미래교육 플러스
24:50 다큐 시네마 〈앵그리버드와 노래를〉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8일 (음 4월 24일 乙丑)

子 36년생 과도함은 공들인 판세를 약화시키니 속히 청산하라. 48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호전 될 것이다. 60년생 망설이다보면 모든 것을 놓치고 말리라. 72년생 넓은 마당으로 나아가리라. 84년생 교체 해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2, 43

丑 37년생 변함없이 일관되게 진행한다면 소기의 목적에 이른다. 49년생 간단명료하게 결행함이 유익하리라. 61년생 주변에 인연이 박한 이들이 보인다. 73년생 절제로 인한 부가적 효과가 상당하다. 85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알찬 결과를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5, 66

寅 38년생 내면의 부실함이 상당하다. 50년생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 허점이 있다. 62년생 기본 방향에 대한 감각을 잃지 말라. 74년생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86년생 부수적인 일은 보류하고 큰일을 도모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7, 42

卯 39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실효적이다. 51년생 가까운 이와 함께 하면서 가닥이 잡히겠다. 63년생 확실히 대처한다면 막을 수 있다. 75년생 다투면 손재요, 양보하면 득이 된다. 87년생 현황의 추이대로라면 길징이 명백하다. 행운의 숫자 : 25, 10

辰 40년생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니 예의 주시 하라. 52년생 근거가 빈약하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64년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실행하라. 76년생 긍정적인 시각이 밝은 미래를 기약할 것이다. 88년생 마무리가 좋으면 성취하는 바가 많으리라. 행운의 숫자 : 88, 70

巳 41년생 외관의 규모까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53년생 기존의 틀이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65년생 즉시 배제하는 것이 옳다. 77년생 공존공영의 기반이 성립되는 도량이다. 89년생 대범한 행동을 보일 때다. 행운의 숫자 : 10, 75

午 42년생 양호한 여건을 조성케 하는 이로움이 보인다. 54년생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만사가 틀어지리라. 66년생 새옹지마요, 전화위복의 격이다. 78년생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90년생 체계적으로 순서를 밟아 나아가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6, 20

未 43년생 주변인의 평에 귀 기울이자. 55년생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포기하라. 67년생 다시 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지도 모르는 날이다. 79년생 제대로 꿰뚫고 있어야만 한다. 91년생 평소에 항상 드나드는 곳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9, 62

申 44년생 눈앞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면 많은 손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56년생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68년생 정성을 다 하다보면 길한 일로 연결 된다. 80년생 허탈해하는 형상이다. 92년생 기다려 왔던 희소식이 들려오리라. 행운의 숫자 : 29, 99

酉 45년생 상호 관계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도다. 57년생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다. 69년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화중지병에 불과 하느니라. 81년생 구슬이 서 말 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라. 93년생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96, 87

戌 34년생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가면 그만이다. 46년생 부족함이 뚜렷하니 속히 보완토록 하자. 58년생 대중 잡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70년생 실효적인 추가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82년생 목적해 왔던 바와 조우하게 되는 뜻 깊은 날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25

亥 35년생 확인만 잘 해도 사고를 예방한다. 47년생 보고도 못 본체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체 해야 한다. 59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71년생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도다. 83년생 애매한 국면에 놓여 있으면 굳이 실행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50, 1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